

## 사회과학연구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전미양\*\*

문현경\*\*\*

---

존재론과 인식론은 사회과학연구의 철학적 토대로서 연구자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현상을 대상으로 삼더라도 연구자의 철학적 토대에 따라 연구 질문과 방법론, 연구 방법, 수집 자료, 함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종종 간과되거나 당연시하여 생략되는 철학적 토대의 중요성을 논하고, 이것이 주관적 웰빙 연구에서 연구방법과 함의를 어떻게 다양하게 설정하는지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연구자가 스스로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정의를 선행하여 방법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고 질문중심 연구를 지향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통해 저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의 존재론, 인식론적 관점은 편의에 따라 쉽게 생략할 수 있는 연구과정의 한 단계가 아니라, 연구의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존재론, 인식론, 철학적 토대, 주관적 웰빙

---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5203)

\*\*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 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질적 연구방법론, 주관적 웰빙 등이다(miyang.jun@gmail.com).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연금정책, 발전국가론, 역사적 제도주의, 질적연구방법론 등이다(goldmedal6@gmail.com).

## I. 서론

모든 사회과학 연구의 철학적 논의는 존재론과 인식론부터 출발한다. 설령 연구자가 스스로의 철학적 토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더라도 모든 연구 주제와 접근 방식은 연구자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로 이해해야 한다. 기초 공사가 전체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와 방법을 설정하기에 앞서 그것이 어떠한 철학적 토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 정의하기를 본 연구는 제안하고자 한다. 철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에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Grix, 2002). 첫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주제, 방법, 함의로 이루어진 연구의 각 단계를 연결하는 논리적 고리를 형성한다. 둘째, 연구자가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접근 방식을 고민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특정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상술한 두 가지 부분은 주로 연구 방법(method)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방법론(methodology)에서 논의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특정 존재론과 인식론적 입장을 기반으로 '무엇(what)'을 '어떻게(how)'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Marsh & Smith, 2001).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이후 사례로 제시할 '주관적 웰빙'이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한다면, 연구자는 자신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에 따라 주관적 웰빙을 소득, 건강 등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지 혹은 특정 집단이 가지는 웰빙의 독특한 개념과 의미를 탐구(explore)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연구자로 하여금 서로 상이하게 정의된 개념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연구 방법과 이에 따른 자료를 설정할 논리적 근거가 된다. 결국 이렇게 결정된 연구 방법은 연구 결과의 적용 범위와 함의를 설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은 한 연구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방법론적 접근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즉, 연구가 기반을 두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핵심 전제를 이해하고 본인 연구가 가지는 강점과 한계를 인정하여 연구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두는 연구는 사회 현상의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s)를 밝히기 위해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반면, 해석주의 인식론의 연구는 사람들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결과의 일반화를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석주의 인식론을 전제로 하는 질적 연구에 대해 "설정된 가설이 무엇인지"라거나 "연구 결과가 과연 일반화될 수 있는지" 등의 실증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해 연구의 함의를 비판할 때, 연구자는 향후 서술

할 반근본주의적 존재론-해석주의 인식론의 전제를 통해 그러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들 간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이점은 경험적 증거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입증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Hay, 2002).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철학적 토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철학적 토대를 구성하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토대에 대한 고민이 연구 과정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할 것이다. 이후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 연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의 인식론(실증주의, 실재론, 해석주의)에 따라 연구 방법론과 함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주관적 웰빙은 모든 인식론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이다. 특히 '주관적'이라는 가치중심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주의 관점의 질적 연구 방법 뿐만 아니라 실증주의와 실재론 인식론의 계량적 연구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종종 당연시하여 간과하거나 생략하기도 하는 사회과학의 철학적 논의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연구 단계임을 피력하고자 한다.

## II. 존재론과 인식론의 정의와 유형

존재론과 인식론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철학,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두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간결하게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존재론(ontology)은 존재를 뜻하는 그리스어 'ontos'가 어원으로 존재의 '본질'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학술적으로 풀어내면 '사회과학자들의 눈에 비치는 현실은 어떠한지?', '그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상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지?'로 귀결된다. Blaikie(2007: 6)는 존재론이 단순히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지를 넘어서 사회 현실의 구성단위, 하위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상술한 정의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 분야로 접어들면 그에 걸맞은 개별적인 존재론이 논의되어야 한다.<sup>1)</sup> 연구자가 존재론적 입장을 정한다면 연구자가 정의내린 현실 세계를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론의 문제로 넘어간다. 인식론

1) 예를 들어, 정치학자인 Hay(2002: 62)는 정치 현실에서 구조와 행위자 간 관계, 행위자들의 아이디어가 정치적 결과물(political outcome)에 끼치는 영향력의 정도, 사회/정치 시스템이 발휘하는 구조적 영향력의 정도 등을 존재론적 가정으로 삼는다.

(epistemology)은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episteme'가 어원으로 지식 추구에 관한 '철학적 인식'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간단하게 인식론은 연구자가 어떠한 철학적 기반 하에 기존 혹은 신규 지식을 탐구할 것인지에 관해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식론에 따라 연구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설령 같은 대상을 분석하더라도 인식론이 서로 다르면 도출된 연구 결과의 성격과 일반화 가능성, 확실성의 정도는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입장을 지닌다(Maynard, 1994: 10).

사회과학연구자들은 다양한 존재론, 인식론적 입장을 지닌다. 본 연구는 Furlong & Marsh(2010)의 분류법을 따라 존재론을 '근본주의'와 '반근본주의', 인식론을 '실증주의', '실재론', '해석주의'로 크게 분류한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독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존재론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식론은 존재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분류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 연구가 서술하는 분류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근본주의(foundationalism)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자연/사회적 법칙에 의해서 좌우되는 '객관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존재론의 한 유형이다(Blaikie, 2007: 14). 특정 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 현상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이러한 객관적 실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예로 고전적 연구에서 논의되는 조직이나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구성원들의 행태를 특정 방향으로 규제하는 일종의 '사회적 질서(social order)' 역할을 수행한다(Bryman, 2012: 32-33). 따라서 근본주의 존재론을 택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이 목격하는 사회 현상은 시/공간적 환경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근본주의는 종종 객관주의(objectivism)나 실재론(realism)<sup>2)</sup>로 불리기도 한다(Furlong & Marsh, 2010: 185).

'실증주의(positivism)'와 '실재론(realism)'<sup>3)</sup>는 근본주의 존재론에 바탕을 둔 인식론으로, 현실 세계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진실이라는 입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두 인식론은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실증

2) 실재론은 존재론과 인식론 모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Grube(1998: 108)는 실재론적 존재론을 연구자의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체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실재론적 인식론은 그러한 실체를 연구자의 추론으로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3) Furlong & Marsh(2010)는 실재론을 고전적 실재론(classical realism)과 현대적 실재론(contemporary realism)으로 분류했지만 비판적 실재론이 최근 현대적 실재론의 주류로 학계에서 대부분 소개되므로 본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의 내용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의는 Auguste Comte, Emil Durkeim, 비엔나 학파 등을 통해 발전했으나, 현재 학계에서 이해하는 실증주의는 비엔나 학파의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가깝다(김태진, 2014). 실증주의의 핵심은 연구자가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것을 소위 '과학적 지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Crotty, 1998: 20). 일반적으로 실증주의는 연구 절차를 1) 연구 질문 설정, 2) 검증 가능한 이론의 구체화, 3) 관측값 선택, 4) 이론의 검증, 5) 결과 도출 등으로 정형화시킨다(Mahoney, 2010: 120-121).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 현상의 인과 관계<sup>4)</sup>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 평가, 정치사회 정향, 개인적 속성을 계량화시켜 이들이 과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다(이현우, 2013). 최근 몇몇 실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적용하는 과학적인 절차를 해석주의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King et al., 1994).

실재론은 영국의 철학자인 Roy Bhaskar가 1970년대 이후 발전시킨 과학 철학으로서, 실증주의와 달리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현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이다. 즉, 실증주의는 사회 현상을 단일체로 판단하지만 실재론은 사회 현상을 관찰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sup>5)</sup>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정의한다. 실재론자들은 실증주의자와 달리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관찰할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을 '추론(inference)'하기 위해 주력하는데,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바로 연구자들의 해석이 개입한다. 즉, '자동적 대상(intransitive objects)'이 있음을 인정하되 연구자의 판단과 해석을 활용하는 비판적인 추론 과정을 거치면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실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이영철, 2010: 173).<sup>6)</sup> 결론적으로 실재론은 근본주의 존재론이면서 해석주의적 인식론의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법칙에 의한 사회 현상의 발생을 인정하지만 이는 특정 환경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맥락적(contextual), 창발적(emergent) 속성을 띤다고 본다(Alvesson & Sköldbberg, 2009: 42). 그러므로 실재론자들이 바라보는 사회 현상은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성원들과 개별적으로 존

4) Mahoney(2001)처럼 실증주의는 인과 기제(causal mechanism)을 밝히지 않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5) 예를 들어,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존재하는 비언어적 '분위기'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지만 조직원들은 그것의 영향을 몸소 느낄 수 있다.

6) Hollis & Smith(1991: 207)의 표현을 빌리면 실재론자들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을 추구한다.

재할 수 없고 나아가 그들의 인식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즉, 사회 현상과 구성원 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된다.

반면 반근본주의(anti-foundationalism)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지식도 객관적 진실로 확실하게 뿌리박힌 것은 없다고 보는 존재론이다. 반근본주의 하에서 객관적 이라고 알고 있는 혹은 믿고 있는 현실의 지식은 실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낸 개념(concepts)과 명제(propositions)라는 틀을 통해 바라본 ‘굴절된 현상’이 되어버린다(Bevir & Rhodes, 2010: 43). 따라서 객관적 지식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모든 지식형성 과정은 행위자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가치형성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7)</sup> 반근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하는 현실은 하나로 고정된 해석만을 요하지 않고 사람과 문화마다 다르게 읽히는 일종의 ‘정신적 형성물(mental constructions)’이라고 주장한다(Guba & Lincoln, 1994: 110). 이러한 이유로 반근본주의는 상대주의(relativism)나 이상주의(idealism)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해석주의(interpretivism)’<sup>8)</sup>는 명백히 반근본주의 존재론에 기반을 두는 인식론이다. 해석주의는 신칸트학파의 인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실증주의가 추구하는 인과적 도식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내포된 의미를 통해 인간의 행위(actions)를 이해하려고 한다(윤건수, 2005: 4-5). 해석주의자들은 사상이나 규범, 관습, 담론 같은 ‘사회적 형성물(social constructs)’을 통해야 인간의 행위가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Parsons, 2015: 504). 사회과학분야에 해석주의를 적용하면 연구자들이 보는 사회 현상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 내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해석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과학의 방향성을 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사회 현상의 수치·계량화가 아닌 개인이나 조직의 인지 및 해석 과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 현상의 탐구에 뒤야 한다. ‘내러티브(narratives)’<sup>9)</sup>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문서, 면접, 담화 등의 내러티브를 통해 사상이나 신념을 드러내기 때문에 해석주의자들은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evir & Rhodes, 2004: 159).<sup>10)</sup>

7) Bevir & Rhodes(2010: 45)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기법 또한 결국 100% 과학적,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이론의존적인 데이터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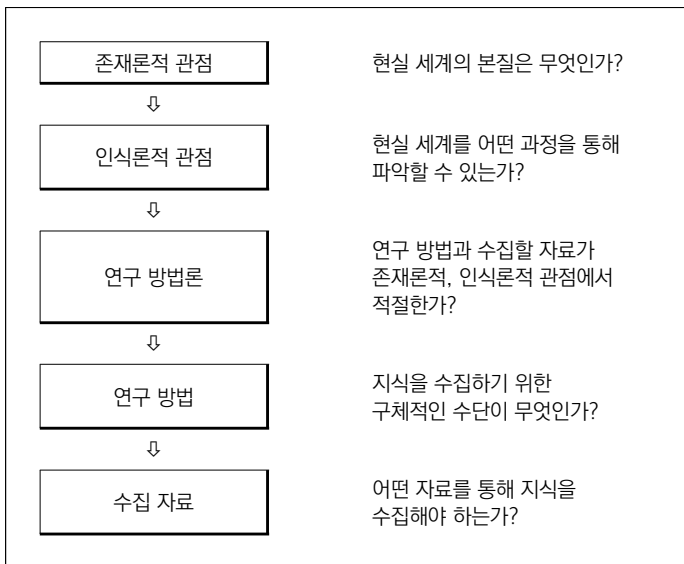
8) 해석주의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로 불리기도 한다(Blakie, 2007; Bryman, 2012)

9) 내러티브는 이야기, 담론, 담화 등으로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자 내러티브로 사용한다.

### III. 철학적 토대를 통한 연구 문제와 방법론 설정하기

그렇다면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결부되는 존재론과 인식론적 위치를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자의 철학적 토대, 즉 ‘사회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다. Grix(2002)와 Mason(1996)은 철학적 토대를 출발점으로 자료 수집이라는 최종 단계까지 이르는 연구의 흐름을 <그림 1>을 통해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연구자는 먼저 자신의 존재론, 인식론적 관점을 토대로 특정 사회 현상을 분석할 방법론을 설정한다. 그리고 방법론과 연구 질문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연구 방법을 결정하고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즉, 연구자의 철학적 토대가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1> 연구 과정의 순서



출처: Mason(1996: 11-13)의 설명을 덧붙여 Grix(2002:180)를 재구성함.

10) 해석주의는 행위자들은 사회적 존재인 걸 감안한다면, 현재 가지는 신념이 결코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지식이나 경험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본다(Furlong & Marsh, 2010: 201).

기존 연구들은 종종 방법론(methodology)과 연구 방법(method)을 혼동하거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건너뛴 채 연구 방법의 적절성만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 방법론이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에 따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연구 방법이 적절한지 논의하는 단계이다(Mason, 1996: 19). 즉, 연구 방법이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면접이나 관찰, 설문 조사 같이 자료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라면, 방법론은 선택한 연구 방법의 적절성, 잠재적 장·단점을 논의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Grix, 2002: 179). 그렇다면 연구자가 특정 사회 현상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자료수집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순서를 거쳐야 하는가? 본 연구는 연구자가 존재론과 인식론적 입장을 토대로 방법론을 설계하고 난 후 연구 질문에 걸맞은 연구 방법을 택하는 질문 중심의 연구(question-led research)를 권장하고자 한다(ibid: 179-180). 이는 최근 국내 사회과학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철학적 토대와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몇몇 주류 연구 방법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 역으로 연구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 중심의 연구(method-led research)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이라는 주제를 ‘질문 중심의 연구법’을 적용해 분석한다고 가정해보자. 근본주의적 존재론의 입장을 가진 연구자는 현실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별’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것이고, 반근본주의적 입장을 가진 연구자는 ‘차별’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생각과 의식의 산물로 이해할 것이다(Blaikie, 2007).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 반근본주의자들은 차별이라는 사회현상을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간주관적(inter-subjectivity)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주장하는 해석주의 인식론을 가질 것이고(Schwandt, 1994), 따라서 차별을 주고받은 개인의 경험, 사고, 언어가 생산하는 자료를 실체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반대로 실증주의자나 실재론자들은 인간의 경험이나 사고와 분리되어 형성된 ‘차별’(Johnson et al., 1984),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률, 같은 직급에서의 임금 격차 등 수치화가 가능한 자료를 관측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차별’을 검증할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개념화할 때 취하는 존재론, 인식론적 입장은 적절한 연구방법을 좌우하기 때문에, 철학적 토대에 대한 고민은 연구방법 결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Blaikie, 2007).

상술한 세 가지 인식론에 따른 방법론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각 인식론에 따른 방법론의 요약

	실증주의	실재론	해석주의
존재론	근본주의	근본주의	반근본주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계량화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 가능한 실체	관찰 가능한 현상과 불가능한 실체가 혼재하는 복합체	각 행위자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 형성물
지향점	변수 간 상관관계를 토대로 나온 결과의 일반화	연구자의 비판적 추론을 통해 실체에 파악하는데 주력	연구 대상의 (간)주관적 이해를 파악해 기존 이론 제고 또는 새로운 이론 형성
연구 방법론	양적 방법론	양·질적 방법론	질적 방법론
연구 방법	회귀분석, 자료포락분석, 베이지안 기법 등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의 연구 방법과 분석 자료를 동시에 활용 가능	면접, 관찰, 문헌자료분석, 시청각 자료분석 등
분석 자료	대규모 패널자료, 실태 조사, 설문지, 기존 통계자료 등		면접 원고, 관찰 기록, 연설문, 회의록 등의 텍스트 자료, 시청각 자료 등

다음 부분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철학적 세계관이 상이한 연구 사례를 통해 앞서 설명한 논의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볼 것이다. 특히 연구자의 존재론, 인식론에 따라 자신들의 접근 방식과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와 함의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논할 것이다.

## IV. 주관적 웰빙 연구를 통한 인식론 분석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Furlong & Marsh(2010)의 분류 방식을 통해, 인식론의 차이에 따라 분석 과정과 결과, 함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관적 웰빙 연구의 사례를 들어 논하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은 삶의 질 연구의 큰 축으로써 행정학 분야에서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고 측정하는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 1. 실증주의(Positivism)

실증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동일한 전제를 적용하여 이해한다. 이들은 이론을 통해 설정한 가설을 관측하여 검증한다면 여러 사회 현상 간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appearance)과 실재(reality)를 분리시키지 않는다(Furlong & Marsh, 2010). 다시 말해, 모든 사회 현상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상 간 인과관계도 수치화하여 관측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다는 논리를 지닌다(Collins, 2010). 다만 이러한 측정 과정에서 수치화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없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은 연구 과정, 결과, 함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Wilson, 2010). 사회 현상의 관측과 측정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한 합의가 형성되었으나 완벽히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가는 실증주의 학자들 간 견해 차이가 있어왔다. 19세기 Karl Menger와 Heinrich Rickert가 이끈 방법론 논의 이후 실증주의 연구는 줄곧 불가치성(value free)을 띠는 연구로 여겨졌으나, 1930년대 Max Weber 같은 학자는 실증주의가 사회현상이나 문화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사이의 상관성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lé, 2000). 한편 현대 실증주의 학자들은 사회과학 연구가 철학, 형이상학, 종교학 등과 달리 사회나 문화에 대한 가치 해석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반면 행복이나 웰빙 같은 가치 중심적인 개념까지 실증적 접근방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bid.: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증주의가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처럼 가치중심적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 세 가지 연구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첫째,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학자 중 하나인 Easterlin(1995)의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9개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 등 국민들의 주관적인 웰빙수준, 웰빙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으로 관측되는 물질적 요소, 개인 소득 수준이라는 3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를 탐구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소득과 삶의 수준을 자신이 속한 사회 내 다른 구성원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좋은 옷을 입거나 휴가지에 별장을 가지는 것처럼 개인의 웰빙 수준을 결정짓는 물질적 요소에 대한 기대는 소득과 동시에 증가한다. 따라서 개인은 일차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더 행복하다고 인식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소득 또한 증가해 물질적 요소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기대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가지는 물질적 요소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 개인 소득에 의해 증가된 개인의 행복 수준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소득과 비교해 증가한 개인 소득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이 누리는 삶의 수준의 변화 모두 주관적 웰빙<sup>11)</sup>에 영향을 끼친다. Easterlin의 연구는 개인별로 웰빙에 대한 이해와 의미 부여가 각각 상이할 것이라는 해석주의와 반대로 보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좋은 삶'이 무엇

11) 연구에서 주관적 웰빙은 개인 소득에 대한 유용성(utility)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인지 생각할 때 떠올리는 물질적 요소들을 지표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소득과 웰빙 수준을 결정짓는 물질적 요소 간의 상관관계, 소득, 물질적 요소, 주관적 웰빙 수준 간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측면에서 실증주의적 연구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둘째, Cook은 두 차례 실증 연구(Cook et al., 2009; Cook, 2012)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sup>12)</sup>과 정책 대상자인 싱글맘의 주관적 복지 수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000명의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19차례의 국가정기조사(Australian National Regular Survey)를 이용하여 싱글맘 334명의 주관적 복지 수준을 측정한다(Cook et al., 2009). 주관적 복지 수준은 전반적 삶의 질(overall quality of life)과 이를 구성하는 9가지 범주(삶의 수준, 건강, 성취도, 유대관계, 안전, 지역사회 소속감, 미래 안정성, 종교, 여가)을 지표화한 ‘개인웰빙지수(Personal Well-being Index)’를 통해 측정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적용되기 이전 싱글맘은 평균 인구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데, 특히 미래 안정성, 유대 관계, 삶의 수준 측면에서 매우 낮은 복지 수준을 지닌다고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싱글맘이 탈수급한 이후 이들은 주당 15시간 이하 일했을 때, 그 이상 일하는 사람보다 건강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실증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 “탈수급한 싱글맘에게 15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을 요구할 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그들의 건강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Cook의 두 번째 연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다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취업한 싱글맘 136명의 주관적 복지 수준을 추적 조사한다(Cook, 2012). 취업 이후 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 유대 관계, 안전, 미래 안정성 지수를 나타내는 개인웰빙지수가 하락했다. 삶의 질은 취업 전환 후의 소득을 통제하더라도, 즉 취업 전과 후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설정해도 취업 이후 하락하게 된다. 다시 말해, 소득이 증가하면 곧 전반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개인웰빙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소득이 낮아지면 지수도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는 “일하는 시간과 웰빙 지수가 반비례하는 결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취업 전 지급받던 급여 혜택이 사라지면서 싱글맘의 전체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추정한다.

1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고용서비스, 노동시장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서 실업급여와 같은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지만 고용 관련 예산에 부담을 덜 주는 것으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다 (Dwyer, 2004).

Cook의 두 연구는 9가지 범주의 개인웰빙지수를 통해서 삶의 질을 정의하고 계량화된 지표표를 통해 이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실증주의적 성격을 띤다. 이렇게 도출된 측정값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싱글맘의 삶의 질 간 상관관계를 측정한다. 최종적으로 Cook의 실증주의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정책 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정책 대상에 따라 삶의 질을 크게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의 최대치를 산정하거나, 하락할 것이라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실증주의 연구는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도출된 측정값이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 평가나 향후 관련 정책의 보완 사항을 논하는데 기여를 한다.

## 2. 실재론(Realism)

앞서 논의한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정형화된 절차를 통해 획득한 경험적 증거와 수치에 입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논의를 전개한다면 실재론에 입각한 웰빙 관련 연구들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실재론에 기반한 연구가 실증주의의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방향성을 띤다거나 논의하는 대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실재론은 웰빙과 행복이라는 개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조작적으로 정의된 측면에만 의존한다면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실재론 기반의 웰빙 연구들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관점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실재론 연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실재론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관점 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주로 논의되는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일원화된 시각으로 웰빙의 모든 면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인 것이다. Joshanloo(2013, 2014)의 웰빙 연구는 대표적으로 실재론에 입각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두 연구를 통해 그는 많은 웰빙 연구가 서구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주로 입각하여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으로만 웰빙을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동양적인 문화, 종교,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개념을 서구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해한다는 출발점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다. 서구에서 발달된 이론과 측정 수단을 통해 바라본 웰빙은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자율성(autonomy), 자존감(self-esteem), 숙달(mastery)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이해

되는 반면 동양의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수피즘(Sufism)을 통해 이해되는 웰빙은 자신이 집단, 사회, 국가 혹은 종교적 신 속에 위치시킬 때 비로소 행복이 극대화된다 (Joshanloo, 2014). 이처럼 웰빙에 대한 이질적인 정의는 충족 조건 또한 문화별로 상이하게 인식하게 마련이다. Lu & Shih(1997)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중국인들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로 정의하면서, 지역 내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웰빙의 '원천'을 9가지로 분류한다. 결론으로 그들은 이러한 9가지의 기준이 서구에서 이해하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첫 번째 관점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웰빙의 다양한 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문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반적 혹은 주류적인 관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웰빙을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치학과 행정학에서도 종종 차용되는 시각으로, '각 정부는 동일한 정책 문제를 왜 상이한 정책 대안을 통해 대처하는지'(Immergut, 1992; Pierson, 1994), '외국에서 수입한 행정개혁의 논리가 왜 한국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김근세, 2001; 안병철·한종희, 2006), '특정 지역 및 군집의 정치·경제·복지 체제가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지'(Kwon, 1997; Hall & Soskice, 2001)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실재론은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이론·경험적 논리를 더욱 보완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서술한 첫 번째 관점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려면, 두 번째 관점은 선행 연구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더욱 탄탄한 논리를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Schimmel(2009)의 연구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HDR)를 통해 UNDP가 인식하는 빈곤, 건강, 개발의 관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특히 측정수단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내포하는 논리, 즉 높은 경제력, 높은 기대수명, 높은 성인 식자율과 학교 등록률이 더 나은 웰빙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전제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설명한다. 결론에서 Schimmel은 HDI 지수는 낮은데 상대적으로 행복지수는 높거나 HDI지수는 높은데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들을 제시하면서, UNDP가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하여 웰빙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ibid.: 2009: 108-110). 이는 웰빙 연구가 UNDP가 매년 발간하는 HDR의 좋은 보완재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실증주의의 '연구자가 오감을 통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도출한 자료가 전체 현실을 보여준다.'는 핵심 논리를 비판한다. 또한 Schimmel은

웰빙이 결코 일원화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 및 사회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다원화'된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재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Simsek(2009)의 연구 또한 실재론에 기반을 둔 적합한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는 기존 연구에서 당연시하는 '인지적(cognitive)' 측면과 '정서적(affective)' 측면이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으로 결합되는 이론적인 기반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Simsek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무엇을 측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호해지고 결국 SWB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존재론적 웰빙(Ontological Well-Being: OWB)'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저자는 OWB가 삶을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전 생애적인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이론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기존 SWB 연구의 이론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ibid.: 2009: 517-519).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실재론의 특성을 띠고 있다. 첫째, 오감을 통해 얻은 소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여겨지는 지식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 둘째, 복잡한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이론에 기초한 '추론(inference)'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연구자를 포함하여 행위자들은 복잡한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추론적 능력을 통해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성찰적인(reflexive)'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셋째, 실재론은 어떤 현상 안에서 예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특징을 발견하는 연구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 현상 내에 존재해왔지만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미처 제시하지 않았던 미시적인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관점이 기존 시각과 같은 수준에서 '외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관점은 제시된 현상의 '내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관점이다. Inglehart(2002)는 '남녀 간 주관적 웰빙의 차이가 비슷하다'는 기존 연구의 경향과 상반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출발한다. 하지만 곧 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주관적 웰빙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경험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놓칠 수 있는 점에 대해 서술한다. 45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단순히 성별만 고려했을 때보다 여성의 주관적 웰빙이 남성의 그것보다 격차가 더욱 큰 데 비해 54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ibid.: 399-404). 또한 이러한 상반되는 경향성이 경제적 선진국일수록 확연히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의 원인을 '목표적응모형(aspiration adjustment model)'을 통해 추론한다. 45세 미만의 여성들(특히 선진국)은 여성운동을 통한 여성인권의 신장을 상대적으로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남성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지만 54세 이상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기간을 더욱 오래 경험한 점, 선진국의 대중매체와 광고에서 이들을 젊은 여성보다 문화적

으로 가치 절하(devalue)하는 점이 남성보다 낮은 주관적 웰빙을 가져온다고 해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확증하기 위해 여성의 최근 지위향상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미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각 연령별 여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ibid.: 407).

Inglehart(2002)의 연구는 실재론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 첫째,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성별 간 주관적 웰빙의 차이로는 그 이면의 '복잡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여성을 연령별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통해 '추론'한다는 점. 셋째,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여성의 주관적 웰빙은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형성(socially constructed)된 현상이라는 점. 넷째, 행위자의 '인식(perception)'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된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예시로 든 연구의 내용이 맞고 틀림을 지적하지 않는다. 대신 연구의 논리전개구조와 결과를 분석하는 관점을 통해 실재론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재론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화된(universalized) 시각을 지양하고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각 관점은 뚜렷한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집단, 사회, 문화별로 공유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가져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험적 증거는 물론이고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자의 추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재론은 실증주의의 가치중립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회 현상의 특징이나 유형을 새롭게 발견하는 비판적, 성찰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 3. 해석주의(Interpretivism)

모든 연구는 어떤 인식론을 취하든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회과학연구에서 해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해석주의 인식론을 취하는 연구는 이를 후자로 이해하므로 독특한 범주의 '해석'을 추구한다. Orlikowski & Baroudi(1991)가 묘사한대로 해석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세상과 교류하여 각자 주관적, 간주관적(intersubjectivity)<sup>13)</sup>인 의미를 만들어 내고 이를 연결하는 행위를 중요시한다. 즉, 해석주의 연구는 사

13) 인간 개개인이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각 인간의 이해와 의미가 갖는 공통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람들이 특정 현상에 어떤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해석주의의 ‘해석’은 자료의 객관성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는 실증주의의 ‘해석’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해석주의자가 바라본 사회 현상은 행위자의 의미가 담긴 해석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란 불가능하다(ibid.: 1991). 사회 현상은 사상, 규범, 관습, 담론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혹은 논변적(discursive)으로 형성된 것이다(Furlong & Marsh, 2010; Yanow & Schwartz-Shea, 2006). 해석주의 연구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담론, 맥락, 전통 등을 통해 자료가 시사하는 이론적 의미를 도출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주의 연구의 주체와 객체로서 개인은 외부 세계의 불가항력에 그대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적극적인 존재이다(Walsham 1993). 이들은 복잡한 사회 현상을 각기 달리 경험하고 이해하며, 서로 다른 이유와 방법으로 다양하게 대응한다. 결국 해석주의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연구 대상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토대로 사회 현상을 둘러싼 그들의 행동 저변에 깔린 논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적 연구(Biographical study), 참여 관찰, 비구조화 면접 기법 등이 연구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며, 사회 현상의 인과 관계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자의 경험을 전제로 일반화시키지 않는다.

앞으로 소개할 세 가지의 연구 사례를 통해 해석주의의 특징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다. 첫째, 영국의 Young lives 프로젝트는 15년 동안 에티오피아, 페루, 베트남, 인도의 아마라바티 주에 거주하는 어린이 12,000명의 웰빙과 빈곤을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추적 조사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된 질적 중단 연구는 7년간 4차례에 걸쳐 대상 어린이 중 200명의 삶과 미래에 빈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한다. 연구는 웰빙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개인의 일생이나 사회 전체의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Crivello et al., 2009). 여기서 웰빙을 개인의 일생, 경험, 시간 등의 맥락을 통해 이해하려는 해석주의 인식론의 특징이 나타난다. 주로 사용된 연구 방법은 ‘아동 주도적 조사방법’으로 웰빙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한 하나의 형성물로 이해하고 있다. 활용한 조사방법으로는 그리기,<sup>14)</sup> 쓰기,<sup>15)</sup> 이야기하기,<sup>16)</sup> 활동 기반 조사<sup>17)</sup> 등이 있는데 모두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쉽게 표현할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14) 인생과정을 그리고 이야기 해보기, ‘행복한 날/ 슬픈 날 그리기

15) 매일 일기쓰기

16)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17) 사진을 보고 대화하기, 아이들이 직접 동네 소개



를 통해 연구는 현재까지 아이들의 웰빙에 영향을 끼친 요소는 무엇이고, 이의 연장선 상에서 향후 목표와 기대에 대해 탐구한다.

둘째, Eloff(2008)의 연구는 남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행복은 각각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구성되고 조율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특정 문화권이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 짓거나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Eloff의 연구는 아이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지 않는 대신 남아프리카 아이들이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일대일 대면 면접으로서 4명의 연구자가 6-13세의 어린이 42명을 면접한다. 연구자들이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연구의 해석주의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언제, 어디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스스로 행복하지 어떻게 깨닫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주관적인 경험이 행복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이해한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테마가 도출(emerged)되었다. 여기서 테마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해석주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귀납적 분석 과정을 의미한다(Blaikie, 2007). 실증주의 연구가 기존 이론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연역적 추론과정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해석주의는 귀납적 추론, 즉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가 시사하는 이론적 의미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론을 구성한다. 아이들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첫째, 아이들의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 둘째, 여가활동, 휴가, 스포츠, 전자게임, 동물과 함께하는 오락, 셋째, 선물이나 돈 등 물질적 소지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loff(2008)의 연구는 해석주의적 입장에 따라 상술한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을 개념화한다.

마지막으로 Courtenay(2000)의 연구는 남성의 육체적 웰빙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사회적 구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는 미국 남성과 여성이 질병 발생률, 기대 수명 및 평균 수명 등의 건강 지표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남성과 여성이 건강에 대한 서로 달리 지닌 '믿음'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는 소위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해석주의적 인식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Courtenay는 건강에 관한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여성적인 활동과 태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위험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남성은 남성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습에 부담감을 느껴 여성보다 더욱 독립적, 자립적, 강함, 튼

튼함, 터프함 등을 증명하려는 경향성을 띠는 것이다. 결국 이는 스스로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예를 들면, 고통을 인정하기 싫어함, 자신의 감정이나 신체를 과도히 통제함,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지배하려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한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사회적 관념에 부합하기 위해 각각 어떤 일련의 활동을 하는지, 둘째, 이 행동들이 그들의 육체적 웰빙에 어떤 위험요소가 되는지를 피력한다.

## V. ‘질문 중심의 연구’가 지니는 함의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인식론 중 특정 관점에 매몰되기보다 다양한 관점이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연구가 가지는 학술적인 의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앞서 강조한 ‘질문 중심의 연구(question-led research)’ 전개에 있다. 연구자가 자신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연구를 전개한다면 다양한 연구 스펙트럼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연구 질문은 분석하려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자들이 정부의 업무 운영을 탐구한다고 가정해보자. 한 연구자는 정부 조직 내 팀제가 애초 목표한 대로 효과성을 높이는지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면접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분석할 것이다(오시영·김병섭, 2009). 어떤 연구자는 실재론에 기초해 가부장적 행정문화가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에 어떠한 형태로 녹아들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가부장적 규제 포획 이론에 근거하여 특정 사례를 바라볼 것이다(사공영호, 1998). 직접 관찰을 통해 문화나 관습의 본질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는바 이론적 틀이 주목하는 특정 요소를 통해 실체에 한걸음 다가가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Bevir & Rhodes (2006, 2010)와 같이 해석주의자는 정부라는 개념의 정형화된 실체를 부정하는 반근본주의 존재론에 입각하여 틀에 박힌 정부 내 운영 방식이 없다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상향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정부 내 행위자들이 업무를 매일 우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 그들의 신념, 행위,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연구 질문을 출발점으로 그에 걸맞은 존재론 및 인식론을 기반으로 사회과학연구를 진행하면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제를 망라할 수 있다. 이것이 처방적인 성격을 지니는 행정학에 주는 함의는 더욱 크다. 실증주의를 통한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는 주로 정부 부처나 국회 등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영역(arena)'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책을 더욱 치밀하게 만들고 집행하여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반면 해석주의 연구는 정책이 적용되는 시민들이나 집단 등 정책 대상자(policy-takers)가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강조하므로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주문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인식론적 관점을 추구해 행정 현장을 바라본다면 더욱 종합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정(process)'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 중심의 연구'의 중요성과 달리 실제 연구 현실은 철학적 토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주류 연구 방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라 역으로 연구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 중심의 연구(method-led research)'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Marsh & Smith(2001)의 다음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많은 사회과학연구가 채택하는 실증주의 인식론이 주류적인 관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여타 인식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간과되고 있다(ibid.: 531). 실증주의를 여러 가지 인식론 중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주류적인 관점에 입각해 나머지 인식론에 기반을 둔 연구가 체계적인 절차가 부족하다거나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등으로 비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임도빈, 2009: 180). 예를 들어, King et al(1994)은 질적 연구자들이 임의 추출(random sampling)을 지양하고 관찰 사례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Dowding(2001)은 일반적으로 적은 수의 사례를 포함하는 질적 연구는 외적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은숙·이달곤(2005)은 정책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라고 분류하면서도 이를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연구 명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외적 타당성을 과학적 연구로서 자격을 얻는 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다(ibid.: 108-109).

중요한 것은 이들 연구가 언급하는 '질적 연구'란 실증주의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로 해석주의에 기반한 질적 연구는 실증주의에 속한 양적 연구와 달리 사회 현상의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 현상 속 행위자가 갖는 의미, 신념 체계, 담론을 통해 현실을 '이해(understanding)'하려는 데 목표가 있다(윤건수, 2005: 5-6). 본 연구에서 분류한 실증주의, 실재론, 해석주의는 각각 고유한 철학적 성격과 시각을 통해 사회 현상과 인간 행태를 상이하게 바라보는바 연구자들은 이를 진지하게 고민한 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결코 무엇이 좋고 나쁘고, 체계적이고 비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으로 결론짓는 규범적인 차원의 문제로 존재론과 인식론을 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각각의 독특성을 간과한 채 특정 관점의 잣대로 다른 관점을 평가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회과학연구의 다양성과 발

전을 가로막는다고 할 수 있겠다. 동일한 관점에 기초해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의 인식론에 대한 한계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특정 인식론의 한계를 서술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인식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원론적이지만 실제로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연구자가 현실 세계에 관한 존재론이나 인식론은 단기간에 변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마다 실증주의, 실재론, 해석주의를 ‘선택적’으로 넘나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방법 중심의 연구에 치중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Furlong & Marsh(2010)가 주장한 대로 연구자의 철학적 토대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연구 방법론과 방법, 자료 수집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이들이 묘사한대로 존재론과 인식론은 연구자가 편의에 따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일종의 ‘스웨터(sweater)’가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피부(skin)’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VI. 맺는말

본 연구는 기존의 학문현장에서 종종 간과되어 왔던 존재론과 인식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둘은 하나의 ‘철학적 토대’로서 연구자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정의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짧게 언급하거나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간단한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상이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기반을 둔 연구를 소위 주류적인 관점을 통해 비판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존재론과 인식론의 다원성(the plurality of ontology and epistemology)을 좋고 나쁨,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체계적인 것과 비체계적인 것 등과 같이 규범적으로 구분 짓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그러한 다원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웰빙 연구의 사례를 통해 근본주의와 반근본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 실재론, 해석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분류법은 본 연구의 시각에 입각해 도출된 것도 있겠지만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사항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인식론에서 여러 가지 하위분류가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기구조주의처럼 본 연구가 설명한 ‘선(先)존재론, 후(後)인식론’의 순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sup>18)</sup>

존재론과 인식론은 본 연구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확히 정의되기보다는 종종 일관

성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다른 분파와 중복되는 내용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Dowding(2016: 14)은 특정 '주의(-ism)'에 연구자들을 껴맞출 수 없고, 나아가 주제에 따라 연구자가 여러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대부분의 연구를 유사한 철학적 사고에 기반을 두어 방법론과 방법을 설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교과서처럼 틀이 잡힌 철학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 질문에 따라 존재론의 세부적인 내용이 연구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그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내용은 고정적임을 뜻한다. 특정한 철학적 토대에 따라 사회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는 자신이 가지는 기본적인 시각을 연구 속에 투영한다. 예를 들어, 근본주의-실증주의에서 반근본주의-해석주의로 혹은 반대로 넘나드는 것은 전략의 수정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정체성 없이 다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많이 시도되는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혼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각 학파 자신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자체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을 조금씩 적용시키는 진지한 고민일까 아니면 단순히 비판을 피하기 위한 어정쩡한 적용인 것일까? 여기서는 조용환(1999: 104)이 강조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연구 기법상 혼합할 수는 있지만 연구 논리상 화합할 수는 없다”를 통해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강조한 대로 결국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상이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기반하여 도출된 상이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향후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내실 있는 현장 교육을 통해 연구 논리와 철학이 좀 더 강조되길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강은숙·이달곤. 2005.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행정논총》, 43(4): 95-121.
- 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한국교육평가학회: 학지사
- 김근세. 2001.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구조의 불일치: 삼중국가관료제.” 《한국정치학회보》, 35(2): 203-223.

- 김태진. 2014. “실증주의 이론과 행정학: 방법론의 비판과 현대적 적용방향.” 《현대사회와 행정》, 24(3): 19-40
- 사공영호. 1998.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한국행정학보》, 32(2): 113-129.
- 안병철·한중희. 2006. “신공공관리(NPM)적 행정개혁과 제도적 정합성: 개방형직위제와 책임운영기관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8(3): 765-792.
- 오시영·김병섭. 2009. “정부조직 내 팀제운영의 실질성과 팀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7(1): 133-157.
- 윤건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39(2): 1-22.
- 이영철. 2010. “패러다임에서 실재로: 구성주의 과학관과 실재론적 과학관으로.” 《정부학연구》, 16(1): 155-179.
- 이현우. 2013. “복지정책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22(3): 95-119.
- 임도빈. 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155-187.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 Alvesson, M, & Sköldbberg, K. 2009. *Reflexive Methodology: New Vistas for Qualitative Research*. 2<sup>nd</sup>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 Bates, S. R, & Jenkins, L. 2007. “Teaching and Learning Ontology and Epistemology in Political Science.” *Politics*, 27(1): 55-63.
- Bevir, M, & Rhodes, R. A. W. 2004. “Interpretation as Method, Explanation and Critique: A Reply.”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6(2): 156-64.
- \_\_\_\_\_. 2006. “Interpretive Approaches to British Government and Politics.” *British Politics*, 1(1): 84-112.
- \_\_\_\_\_. 2010. *The State as Cultural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aikie, N. 2007. *Approaches to Social Enquiry*. 2<sup>nd</sup> edition, Cambridge: Polity.
- Bryman, A. 2012. *Social Research Methods*. 4<sup>th</sup>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H. 2010. *Creative Research: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search for the*

*Creative Industries*. Switzerland: AVA Publications

- Cook, K. 2012. Single Parents' Subjective Wellbeing over the Welfare to Work Transition. *Social Policy and Society*, 11(2): 143-155.
- Cook, K., Davis, E., Smyth, P., & McKenzie, H. 2009. The Quality of Life of Single Mothers Making the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Women & health*, 49(6): 475-490.
- Courtenay, W. H. 2000. Constructions of Masculinity and Their Influence on Men's Well-Being: A Theory of Gender and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50(10): 1385-1401.
- Crivello, G., Camfield, L., & Woodhead, M. 2009. How Can Children Tell Us About Their Wellbeing? Exploring the Potential of Participatory Research Approaches Within Young Liv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0(1): 51-72.
- Crotty, M.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eaning and Perspective in the Research Process*. Thousand Oaks: Sage
- Cameron, D. (2010). PM speech on wellbeing. Cabinet Office,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and The Rt Hon David Cameron MP: 25 November 2010. [Online].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peech-on-wellbeing> [Accessed 14 June 2017]
- Dowding, K. 2001. "There Must be End to Confusion: Policy Networks, Intellectual Fatigue, and the Need for Political Science Methods Courses in British Universities." *Political Studies*, 49(1): 89-105.
- \_\_\_\_\_. 2016. *The Philosophy an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Dwyer, P. 2004. Creeping Conditionality in the UK: From Welfare Rights to Conditional Entitlements? *Th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9(2): 265-287.
-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 Eloff, I. 2008. In Pursuit of Happiness: How Some Young South African Children Construct Happiness.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18:1, 81-87
- Furlong, P., & Marsh, D. 2010. "A Skin Not a Sweater: Ontology and Epistemology in Political Science." In D. Marsh and G. Stoker (eds).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3<sup>rd</sup> edi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Grix, J. 2002. "Introducing Students to the General Terminology of Social Research." *Politics*, 22(3): 175-186.
- Grube, D. M. 1998. Realism, foundationalism, and constructivism: A philosopher's Bermuda-Triangle? *Neue Zeitschrift für Systematische Theologie und Religionsphilosophie*, 40(1), 107.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and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105-117), Thousand Oaks, CA: Sage.
- Hall, P, & Soskice, 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y, C. 2002. *Political Analysis: A Critical Introduc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Hollis, M, & Smith, S. 1991.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mmergut, E. 1992. "The Rules of the Game: The Logic of Health Policy-Making in France, Switzerland, and Sweden." In S. Steinmo., K. Thelen and F.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pp. 57-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2002. "Gender,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3(3-5): 391-408.
- Johnson, T., Dandeker, C, & Ashworth, C. 1984. *The Structure of Social Theory: Dilemmas and Strategi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Joshanloo, M. 2013. "A Comparison of Western and Islamic Conception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6): 1857-1874.
- \_\_\_\_\_. 2014. "Eastern Conceptualizations of Happiness: Fundamental Differences with Western View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2): 475-493.
- King, G., Keohane, R. O, & Verba, S.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won, H. J. 1997. "Beyond European Welfare Regime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East Asian Welfare Systems." *Journal of Social Policy*, 26(4): 467-484.
- Lu, L, & Shih, J. B. 1997. "Source of Happiness: A Qualit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2): 181-187.



- Mahoney, J. 2001. "Beyond Correlational Analysis: Recent Innovations in Theory and Method." *Sociological Forum*, 16(3): 575-593.
- \_\_\_\_\_. 2010. "After KKV: The New Methodology of Qualitative Research." *World Politics*, 62(1): 120-147.
- Marsh, D, & Smith, M. J. 2001.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Do Political Science: On Different Ways to Study Policy Networks." *Political Studies*, 49(3): 528-541.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Sage.
- Maynard, M. 1994. "Methods, Practice and Epistemology: The Debate about Feminism and Research." In M. Maynard and J. Purvis (eds). *Researching Women's Live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pp. 10-26), London: Taylor and Francis.
- Orlikowski, W. J. & Baroudi, J. J. 1991. Study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Organizations: Research Approaches and Assump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1), 1-28.
- Parsons, C. 2015. "Before Eclecticism: Competing Alternatives in Constructivist Research." *International Theory*, 7(3): 501-538.
- Pierson, P.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é, B. 2000. Auguste Comte on positivism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 423-445.
- Schimmel, J. 2009. "Development as Happines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appiness and UNDP's Analysis of Poverty, Weal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y*, 10(1): 93-111.
- Schwandt, T. A. 1994. "Constructivist, Interpretivist Approaches to Human Inquiry.", In N. K. Denzin and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118-137), Thousand Oaks, CA: Sage
- Simsek, O. F. 2009. "Happiness Revisited: Ontological Well-Being as a Theory-Based Construc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05-522
- Walsham, G. 1993. *Interpreting Information Systems in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Inc.

Wilson, J. 2010 *“Essentials of Business Research: A Guide to Doing Your Research Project”* SAGE Publications

Yanow, D. & Schwartz-Shea, P. 2006. *Interpretation and method. Empirical Research Methods and the Interpretive Turn.* ME Sharpe, New York/London.

## **The Role of Theoretical Frameworks: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in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Miyang Jun & Hyungyung Mo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ny research project reflects the researcher's fundamental perspectives on the world: what there is to know and how to know it. It is the discussion of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positions. The theoretical framework shapes its research question, research methods, type of data gathered and analyzed, and their implications.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clud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any research paper, by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in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By doing so, this paper argues that a robustly discussed theoretical framework helps research become more question-driven as opposed to method-driven.

※ Key Words: ontology, epistemology, theoretical framework, subjective well-being